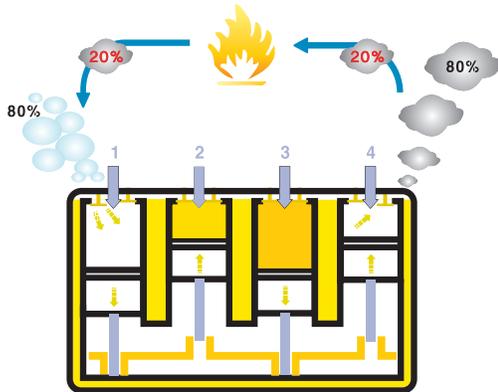


# 배출가스를 계속해서 엔진으로 재흡입 한다구요?

## 알고계십니까?

배출가스를 재순환시키는 EGR 시스템 (Exhausted Gas Recirculation) 이라는 엔진이 있습니다.  
전세계 배출가스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탄생한 엔진.  
배출가스 농도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일부를 다시 엔진으로 흡입해버리는 엔진.



국내에 '캐터필라'를 제외한  
모든 엔진이 EGR입니다.

알게 모르게 수명이 단축되고 있는 엔진.  
쓰면 쓸수록 출력이 떨어지는 휠로다.  
중고로 팔 때는 헐값인 재산.  
구매자의 휠로다가 아니라,  
기준에 맞춰 팔기 위한 제조사의 휠로다.

**그래도 쓰시겠습니까?**



**CAT** Power | **ACERT** Technology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는  
**CATERPILLAR** 엔진.  
캐터필라 휠로다는  
출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가을로 걸어 들어가다

싱그러운 초록으로 빛나던 자연의 끝자락에

가을의 전령들이 흐드러지게 내려앉았습니다

사방으로 펼쳐진 너른 꽃 천지에 이르면

하얗고 붉은 공간 사이로 가슴이 트이고

바람개비를 잡은 꼬마아이처럼 신나게 달려도 봅니다

오늘은 마음속 담은 아련한 생각 하나

손끝에 드리운 채 좁은 길을 혼자 걸어가면 좋은 날입니다

## CONTENTS

행복  03 프롤로그 | 04 Theme Essay | 06 Theme Space

교감  08 Haein Holic | 11 SOLUTION FAIR 2007

20 Conex Korea 2007

감성  22 재테크 레슨 | 24 헤인일보 | 26 헬스·웰빙 테크

심리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시카고 대학의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지금 당장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단정한다. “승진을 한다면, 집을 산다면, 낄싯해진다...” 하는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일에 몰입해서 시간이 정체된 듯한 느낌을 갖게 되면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다. 완전한 심리적 몰입을 뜻하는 칙센트미하이 교수의 ‘플로(flow) 이론’ 인데 우리말로는 ‘삼매경’ 인 셈이다. 이런 심리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취미를 가지는 게 좋은 방법이다. 취미생활은 곧 골치 아픈 현실문제에서 탈출해 자기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 나를 삼매경에 빠트려라!



## 시간 때우기에서 또 다른 삶으로

직장생활 5년차인 A대리. 회사에 적응하느라 몇 년은 숨쉬 틈도 없이 보냈다. 야근을 하느라 회사에서 먹는 저녁은 일상이었고 주말은 그저 수면으로 보낸 지 벌써 5년.

‘이젠 나도 취미생활을 해서 ‘또다른 나’ 를 찾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무기력하기만 한 시간을 보내던 A대리.우연히 찾은 웹 사이트 하나가 그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한달 후, 그의 주말은 금요일 밤부터 시작된다. 토요일 있을 출사를 위해 카메라 장비를 꾸리고 렌즈를 닦고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보며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좋은 출사를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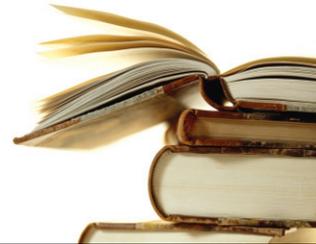
소비패턴도 바뀌었다. 동료와 친구들과 기울이던 술값이 지출의 대부분이던 한달 전, 하지만 지금은 술자리도 줄었다. ‘술값 몇 번 아끼면 렌즈가 하나’ 라는 생각 때문이다. 취미를 가지기 전 막연히 ‘취미가 생기면 지출이 커질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였다. 지출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출을 줄이게 되고 효율적인 소비를 하게 된 것이다.

사진에 빠진지 두 달, 그의 한마디. “또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아마 그대로 무기력하게 살았으면 이도 저도 아닌 슬럼프에 빠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취미생활 때문이라도 더 열심히 일하게 돼요. 이렇게 재미난 삶이 있을 줄이야!”

“이젠 나도 취미생활을 해서 ‘또다른 나’ 를 찾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한달 후, 그의 주말은 금요일 밤부터 시작된다.  
토요일 있을 출사를 위해 카메라 장비를 꾸리고 렌즈를 닦고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보며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좋은 출사를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든다.

.....

“이야기를 만들어내다 보면 어떨 때는 나 혼자 너무 재미있어서  
깁깁대기도 해요. 밤에 아내와 딸 앞에서 ‘여행연습’ 을 하죠.  
덕분에 우리 집엔 매일 웃음꽃이 피어요.  
봉사활동을 시작한 후 3년은 젊어졌다”



## 우리는 봉사활동이 취미죠

‘수십 년 동안 나를 잊은 채 일에 몰두했다. 이제는 ‘나’ 를 위해 뭔가를 찾고 싶다. 이왕이면 도움을 주는 사회봉사활동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B부장. 그가 이동 일시 보호소의 문턱을 넘자마자 환호성이 터진다. “이야기 할아버지가 왔다!” 울망졸망한 아이들이 몰려와 B

부장의 팔에 매달렸다. B부장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갈 곳 없는 이 곳 아이들에게 매주 한 번씩 전래동화를 들려주고 있다. 목소리를 높이고, 손짓발짓을 크게 해 가며,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갖은 꾀를 다 쓰는 토끼 이야기를 늘어놓자 아이들의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난다.

“어릴 때부터 동화를 좋아했어요.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이왕이면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동화 들려주기로 남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어요.” 아이들을 더 기쁘게 해주기 위해 B부장은 인터넷을 뒤지고, 서점에서 책을 훑어가며 아이디어를 찾아 이야기를 만든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다 보면 어떨 때는 나 혼자 너무 재미있어서 깁깁대기도 해요. 밤에 아내와 딸 앞에서 ‘여행연습’ 을 하죠. 덕분에 우리 집엔 매일 웃음꽃이 피어요. 봉사활동을 시작한 후 3년은 젊어졌다” 고 말한다.

익숙해질수록 무기력하기만 한 일상생활. 매일매일 돌아가는 쳇바퀴같은 시간은 일상의 권태를 가져온다. 그럴 때, 일상 속에서 나를 자극하고 돌파구를 찾아주는 무엇! 때론 우리에게 ‘크레이지’ 를 선사할 무엇이 필요하다. ‘크레이지’ 를 찾는 것! 삶에 휴식을 또는 돌파구를 가져다 줄 신성한 충격이 될 것이다.

글 | 조아리 성공칼럼니스트

과거 우리를 빠져들게 했던 수많은 문화아이콘들이 있다. 저녁 무렵 흑백 TV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몰려들게 했던 김일, 팝의 슈퍼 히어로 마이클잭슨, 그리고 꿈에 늘 등장하던 소피마르소와 임청하. 우리에게 열광과 환호를 가져다 준 1970년부터 1990년대까지의 크레이지 아이콘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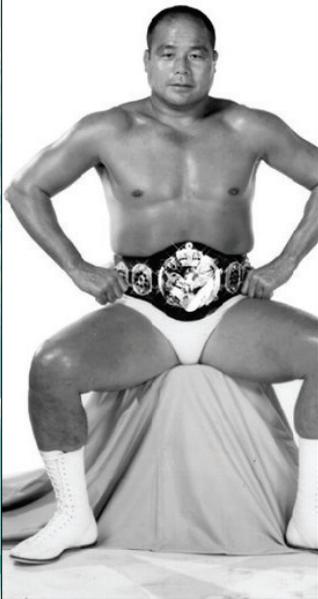
# 우리를 미치게 했던 것들

## 1970's icon 박치기왕 김일

조그만 흑백 TV 속으로 모든 이의 시선이 쏠리던 시간이 있었다. 바로 1960년대 당시 대단한 인기를 누리던 프로레슬링, 그 중심에는 만화 영화의 주인공 공같은 백전불패의 주인공 박치기왕 김일 선수가 있었다. 그 시대 김일 선수 아말로 온갖 역경을 이겨낸 인간 승리의 표본이자, 국민영웅이라 할 정도로 대단했었다.

돌이켜 보면 박치기왕 김일로 대표되는 70년대 한국 프로레슬링이라는 아이코는 바로 '잘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유래 없는 압축성장을 해온 박정희 시대를 대표하는 적절한 문화 아이콘이 아니었을까 싶다.

자신의 몸보다 세배는 더 큰 우람한 서양 프로레슬러들을, 작지만 매운 '박치기'라는 무기로 어김없이 제압해가는 김일 선수를 보면서 전쟁으로 인한 기난과 패배감에 찌들었던 세대들이 느끼는 만족감은 상상하기 힘들만큼 컸다. 그 뿐인가? 평소 체격만 크다 뿐이지 어김없이 김일 선수에게 패하는 서양선수를 마음껏 비웃으면서 이들 또한 그리 대단치 않다는 것, 우리도 열심히만 하면 김일 선수처럼 온갖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알 수 없는 자신감과 대리만족을 심어준것, 이것이야말로 '잘 살아보세'라는 그리 투명하지 않은 선동성 구호 한마디보다 더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어 자신감을 북돋아줄 수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그 시대 대표적인 문화 아이콘으로서의 프로레슬링의 미덕이 아닐 수 없다.



## 1980's icon 마이클 잭슨

처음 '팝송'을 듣게 된 게 아마도 1984년쯤이 아니었나 싶다. 어느 반에나 한 녀석씩 있는 '팝송을 듣는' 친구를 보면서 도대체 저 친구는 왜 저런 음악을 들을까 궁금해 하며 한 번 들어보게 된 라디오 팝 프로그램. 그러나 얼마 후 많은 친구들이 한글로 영어발음을 적어 가사를 외우게 되면서 가요보다는 팝이 1980년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조금은 우쭐하게 들던 '팝송'에서 시작된 1980년대의 문화는 '마이클 잭슨'이라는 한 뮤지션으로 모두의 공감을 갖게 된다. 당시 마이클 잭슨의 문 워킹을 똑같이 흉내내는 아이들이 학교마다 몇 명씩 있었고 이 친구들은 소풍 때 스타가 되었다. '브레이크 댄스' 배우기 열풍이 불어서 잘 짚이지도 않는 팔 관절을 꺾어가며 연습하기도 했었고 '로버트 춤'이란 것이 유행하기도 했다. 마이클 잭슨의 'Thriller' 앨범은 우리나라로 치면 서태지 현상과 같이 거대한 변화를 몰고 왔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마이클잭슨의 노래와 춤을 수많은 댄스가수들이 연말 음악시상식장에서 재현하고 있고 티비의 오락프로그램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면 2000년대인 지금도 마이클 잭슨은 숨쉬고 있다.



## 1990's icon 소피마르소와 임청하

'책받침 속의 여인' 중 대표는 소피마르소와 임청하였다. 1990년대 초반,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는 홍콩 영화속 임청하와 끝없이 터프한 남자들 사이에서 홀로 가녀림을 빛내던 소피마르소는 '남성'으로 말하던 1980년대 후반의 홍콩영화의 영광을 고스란히 1990년대로 넘겨주었다. 홍콩영화 속 한 장면처럼 내 손에서도 장풍이 나갈 것 같고 진한 선글라스에 프렌치 코트(바바리 코트라고 해야 더 어울린다)를 걸친 한 남자가 바람을 가르며 등장해 내 옆에 설 것만 같던 시기, 우리를 영화의 꿈에 살게 하던 시기가 바로 1990년대였다. 영화의 힘은 한국영화로도 이어졌다. 1990년대는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였다. <썬더>의 강제규, <투캅스>의 강우석이 흥행 감독으로 자리 잡았다. 심은하, 고현정, 고소영, 장동건, 정우성, 이정재 같은 배우들이 첫 작품을 찍었다. 아직도 이들은 한국의 대표 감독, 대표 배우를 독식하고 있다.



글 | 주성철 대중문화평론가



## 명품,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325D

서울에서 어언 5시간. 긴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바로 캐터필라 말로 내 사업의 동반자 라 말하는 광덕중기 김두용 사장이 있는 부산 해운대 좌동 백병원 현장이다. 거대한 현장에는 다양한 장비들이 포진해 있었지만 그 중에 단연 눈에 띄는 장비가 있었으니 바로 헤인의 캐터필라 325D였다.



1 (주)헤인의 특별한 서비스 1 ET장비 점검. 이는 노트북으로 장비의 모든 전자제어 장치를 점검하는 서비스로 장비의 이상유무를 장비 분해없이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다.  
2 (주)헤인의 특별한 서비스 2 SOS 서비스. Scheduled Oil Sampling의 약자로 장비 내의 오일 샘플을 채취해 계통내 금속물질의 함유량으로 고장유무를 사전에 점검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로 쉽게 설명하면 혈액검사라 말할 수 있다고 한다.

### 기계는 정말 명품

‘기잉~’ 장비가 움직이는 소리가 귓가를 때린다는 생각이 들 즈음, 부산 해운대 좌동 백병원 현장에 도착했다. “안전모를 꼭 쓰세요.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입구관리직원의 손에서 안전모를 건네받고 안내에 따라 현장으로 들어갔다. 대규모 공사현장답게 수많은 장비들이 늘어서 있다. 국내에 출시된 모든 장비는 다 모인 것처럼 말이다. 수많은 장비 사이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장비, 바로 헤인의 캐터필라 325D다. “캐터필라 장비에 대해서는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장비로는 최고죠. 건설기계 중 ‘명품’ 이라니까요. 이 일을 한지도 삼년이 넘었지만 제가 일을 배울 때부터 캐터필라는 명품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차주가 되어 사용해보니 말로만 듣던 캐터필라의 우수성을 실감합니다.” 캐터필라 325D의 주인인 광덕중기 김두용 사장의 말에서 캐터필라에 대한 신뢰가 묻어난다. 국내에서 출시된 수많은 국산장비를 다 써보았지만 어떤 장비도 그를 만족시켜주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텐급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장비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수많은 업체의 영업사원들과 만나고 설명을 들던 중 (주)헤인의 박광흠 대리를 만났다. 흔히 말해 ‘끈질기다’라고 할 정도로 캐터필라 325D를 소개하던 열정에 반해 장비를

구입하기에 이르렀다. 구입 후에도 끊임없이 제품에 대해 설명을 하고 문제가 없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물어보는 박광흠 대리와의 (주)헤인의 서비스팀이 없었다면 그는 캐터필라를 구입한 것을 후회했을지도 모른다. “서비스는 우선 말이 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품에 대해 물어보면 제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바로바로 설명해주곤 합니다. 그 후에 혹시 불편한 점이 있을까 다양한 테스트를 실시해주는 것을 보면 신뢰가 생기죠. 이런 서비스 정신이 다음에도 또 캐터필라 제품을 구입하고 싶어지게 하지 않을까요? 기계만 명품인 게 아니라 서비스도 명품이더라고요.”

### 국내실정에 맞는 등급설정 시급

김두용 사장은 처음 캐터필라 325D를 구입할 때 많이 망설였다고 한다. 다른 장비에 비해 가격대가 높은 것이 제일 처음 직면한 문제 이긴 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시장성'이었다.

"325D는 국산 텐급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현장에서 같이 작업을 하다보면 다른 장비들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캐터필라 325D를 사용해본 현장에서는 인정을 받는거죠. 그러나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국내장비와 다른 등급이죠. 텐급, 360급 등 국내에서는 시장의 등급이 나누어져 있는데 캐터필라의 장비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요. 차는 텐급인데 능력은 360급 이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국내에서 텐급을 가진 차주들이 싫어하지 않았어요?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등급문제로 인해 시장성이 낮습니다. 텐급과 같이 일하면 동료를 밀어내는 상황이 생기니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곤 하죠. 그리고 국내시장에 맞는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사에서 국내실정에 맞추어 등급을 정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캐터필라를 가진 차주들이 더 쉽게 일할 수 있을 겁니다."

### 써보고 이야기하자

등급에 따른 문제가 종종 발생하지만 김두용 사장은 325D의 좋은 점이 더 많다한다. 텐급에서는 어떤 장비와도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내구성과 생산성에서 월등하다. 국내에서 비교대상을 찾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그리고 한번 현장에 투입되면 오랜 시간 일을 하는 특성 때문에 국산장비를 이용할 때는 어깨 결림 등 피로를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325D를 사용한 후로는 작업이 편리해 10시간 이상 일해도 어깨가 결리지 않고 피곤이 느껴지지 않는다 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차주들에게 이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

"325D는 텐급보다 생산성에서 30% 이상 월등할 겁니다. 360 또는 380과 붙어도 지지 않을걸요? 또 하나 좋은 점은 기름을 적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흔히 캐터필라 제품이 기름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325D는 텐급보다 훨씬 높은 생산성이지만 기름은 텐급정도 사용합니다. 요즘 기름값이 얼마나 무서운데..."

계약을 할 때 종종 텐급의 가격대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때 김두용 사장은 한마디 한다. "써보고 이야기 하시죠." 장비에 대해 자신이 없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렵게 잡은 현장에서 '최고'라고 인정받을 때 '캐터필라 장비를 선택하길 잘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김두용 사장.

명품은 시간을 이겨야만 명품으로 인정받는다고 한다. 몇십년을 이어오는 제품에 대한 신뢰가 '명품'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김두용 사장이 가진 325D와 헤인의 서비스 마인드가 오랜 시간 그에게 진정한 명품으로 남기를 바라본다.

글 | 목지영 ● 사진 | 정준택

텐급보다는 훨씬 위, 360과 같이 작업해도 절대 밀리지 않는 월등한 작업력을 소유한 325D!



## 또 다른 도약을 위한 Solution Fair 2007

(주)헤인 천안 고객지원센터에서는 2007년 10월 11일~12일까지 약 1,100여 명의 고객들이 방문한 가운데, 'SOLUTION FAIR 2007' 이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인 종합전시회를 개최했다.

SOLUTION FAIR 2007은 'Value For The Customer! (고객을 위한 가치 추구)' 라는 주제로 지난 Conex Korea에 출품되었던 신제품을 비롯 현재 판매중인 모든 제품이 전시되었으며 장비 시연 및 공장투어, 세미나, 이벤트 등 각종 프로그램과 금융, 서비스, 부품, 기술 정보 등의 다양한 솔루션으로 고객과 만났다.

캐터필라 굴삭기 328D LCR 외 3대와 캐터필라 휠로더 972H PLUS 외 2대, 그리고 캐터필라 불도저 D3G LGP 등 30여대의 장비와 캐터필라 발전기, 해상엔진, 퍼킨스 엔진, 더스트보스 등이 공개되어 SOLUTION FAIR 2007을 찾은 고객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SOLUTION FAIR 2007 그 뜨거운 현장으로 들어가보자.



HAEIN CORPORATION  
**SOLUTION**  
**Fair 2007**  
OCTOBER 11/12





01



02



05



07

01 참가객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야외 전시장  
 02 도우미를 따라 열심히 전시장을 둘러보는 참가객  
 03 현장에 구비된 많은 자료들은 큰 호응을 얻었다  
 04 아심찬 신제품, 중형 소선회 굴삭기 328D LCR  
 05-09 전 지역에서 모인 많은 참가객들은 정비센터와 엔진센터, 서비스 센터 등을 둘러보았다



03



04



06



08



09

### 고객가치를 위한 SOLUTION FAIR 2007

지난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주)헤인 천안고객 지원센터에서는 'Value For The Customer!(고객 가치)'를 주제로 한 'SOLUTION FAIR 2007'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장비 뿐 아니라 금융과 서비스, 부품 등 (주)헤인의 모든 것을 고객 앞에 선보이는 자리로 (주)헤인에서 고객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아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였다.

고객들의 탑승 차량들이 하나둘씩 행사장에 도착하기 시작하자 헤인 직원들은 제법 분주해졌다. 고객들의 투어 그룹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그룹 특유 색상의 모자와 도우미의 설명 청취가 가능한 헤드셋을 나눠주기 위함이었다. 고객들의 유익하고 편리한 전시회 관람을 위하여 준비한 헤인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어색한 듯 모자와 헤드셋을 착용한 고객들은 각 그룹의 깃발을 높이 들어올린 인솔

자들의 안내에 따라 첫번째 일정인 야외 전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 고객의 뜨거운 시선을 받은 야외 장비 전시장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것은 웅장한 장비들이었다. 장비 전시장에는 캐터필라 굴삭기, 불도저, 휠로더, 포장장비를 비롯하여 MCF 지게차, 아트라스 컵코 공기 압축기 등의 각종 건설기계들이 전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참가객의 집중과 관심을 받으며 전시장의 한 가운데에서 하얀 막을 쓴 채 숨죽이며 공개를 기다리는 장비가 있었다. 바로 2008년 국내 출시를 목표로 아심차게 준비한 중형 소선회 굴삭기 328D LCR와 3.5톤급 소선회형 굴삭기, 캐터필라 303C CR이다. 328D LCR은 작동중량 35.4톤, 정격출력 207마력으로 캐터필라 C7 ACERT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소형굴삭기의 전유물이었던 소선회 개념을 중형굴삭기에 도입함

으로서 도심지내에 협소한 공간과 도로보수공사, 터널공사장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굴착력 및 복합작업을 요구하는 현장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다. 캐터필라 303C CR은 오토 아이들링 기능을 갖춘 친환경 엔진과 저연비/저소음을 특징으로 동급 최강의 빠른 사이클 타임과 뛰어난 굴착력을 지니고 있으며 200도 이상의 버켓 접힘 각도는 작업시 작업물질의 낙하를 방지하여 공기 단축을 보장하는 장비로 고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328D LCR와 303C CR이 공개된 후 야외전시장을 찾은 고객들은 직접 시승해 제품을 꼼꼼히 살펴기도 했다.

한편, '에버다임', '대모엔지니어링', '엔케이티', '준씨에스' 등의 어태치먼트 회사들도 대거참여하여 굴삭기 사업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전시제품** : 휠굴삭기 M313D, 휠로더 980H, 컴팩트 휠로더 908, 굴삭기 325DL, PM-200 노면파쇄기, 아스팔트피니셔 AP-755, 스키드 로우더 256C, CB-

334E 콤팩트롤러, CB-335E 콤팩트롤러/ CB-14 콤팩트롤러, CS-533E 진동롤러, 티어쓰리 엔진인 C-18이 탑재된 XRVS606CD, C-13엔진을 장착한 고압컴프레샤 XRVS476CD, C-9가 탑재된 XRS396CD, 디젤지게차 DP N 시리즈, 전동지게차 EP-시리즈, 고출력 3046T 터보차저엔진을 탑재한 D3G 도저, 소선회굴삭기 328D LCR, 303C CR, 303C CR와 대모엔지니어링과 에버다임에서 출품한 워크툴과 준CS에서 출품한 소형 워크툴

### 고객 지원 서비스 부문 전시장

참관객들은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헤인에서 제공하는 첨단 진단 공구 및 기기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고객 지원 서비스 전시장'을 찾았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장비 구매부터 수명이 다할 때까지 단계별로 제공되는 통합 솔루션인 '장비 라이프 사이클' 포스터였다.



10



11



12



13

곧이어 장비유지관리와 보수 계약 체계, 정비 흐름도, 오염관리, 엔진동력계, 유압진 동력계, 기술분석, SOS 서비스, 구성품 교환제도, 캐터필라 수리보증 장비 등의 서비스와 고장진단 기기, 또한 온라인 장비 유지 관리 정보 서비스 및 부품 구매 시스템 등의 여러가지 부문의 서비스 체계가 소개되었다. 또한, 여러가지 캐터필라 순정 부품들이 전시되었으며, 현장의 생산성을 측정하고 다양한 분석과 조언을 제공하는 '프로덕션 스터디'와 장비구매와 함께 유지보수 및 운영비 절감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벨류 패키지' 상품은 고객들이 장비를 구매하고 운용하는 데 여러모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로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고객들의 이목이 집중된 곳은 초보 조종사의 운전기술 숙련 및 교육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굴삭기 시뮬레이터. 이 장비는 실제 장비에서 배우는 것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조종 연습을 할 수 있어 직접 작동해보려는 고객들의 순서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지보수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정밀진단 및 측정기기를 탑재한 CSA 차량과 매연저감장치(DPF) 등을 마지막으로 고객 지원 서비스 부문 전시장의 관람을 마쳤다.

**교육센터와 서비스샵 정비시설,**

**엔진 및 발전기세트 전시장**

천안 서비스숍 내 교육 센터와 정비시설을 둘러 본 후, 엔진 및 발전기세트 전용 실험동으로 이동한 고객들은 발전기세트의 동력시험 뿐 아니라, 고객이 요구하는 사양을 만족하기 위한 설비를 직접 조립하여 공급하기 위한 전천후 조립시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주)헤인에서 조립하고 있는 엔진으로는 정격출력 2000kW로 약 아파트 2000세대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G3520C 가스엔진발전기, 소형발전기 시



14



15



16

10 인간과 기계의 댄스배틀! 11 부드러운연서도 편리하게 움직이는 장비에 감탄 또 감탄!  
12 전시장 내 마련된 뷔페 13 전시도 보고 선물도 받고-  
14-15 다양한 장비와 전시품에 관람객들의 관심도 업!  
16 관람객들의 큰 관심이 쏠린 굴삭기 시뮬레이터

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판매되고 있는 3406 GEN-SET, 판형 열교환기 장착형의 컴팩트한 디자인이 특징인 C-18 Marine Engine, 이미 2000시리즈 패밀리에서 입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욱 업그레이드 된 첨단 엔진 Perkins 2506 GEN-SET 등이다.

**인간과 기계의 댄스배틀 'Demo 시연장'**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던 관람 분위기를 확실히 환기시켜주는 곳이 있었다. 그 곳은 바로 (주)헤인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캐터필라 장비와 B-Boy 댄싱팀과의 댄스 배틀이 열리고 있는 데모 시연장. 트랙형 스키드로드 멀티터레인로더 972H 플러스 휠로더, 1.2루베 버킷을 장착한 탠덤 굴삭기 324DL의 부드러운 등장과 함께 B-Boy 댄싱팀과의 댄스 배틀이 시작되었다.

캐터필라의 상차장비인 '966H'와 '740 덤프 트럭'이 실제 작업을 연출하며 각 장비의 특성을 보여주었고 곧이어 대형 토목 공사의 가장 이상적인 상차 조합이라는 365CL 굴삭기와 740 덤프 트럭의 상차 모습이 이어지며, 중간중간 B-Boy 댄싱팀의 흥겨운 댄스가 곁들여졌다.

특히, 울퉁불퉁한 험지에서도 신속히 이동하며 지반이 약한 곳에서도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하며, 허리가 굴절되는 구조로 좁은 지역에서도 회전 가능한 740 트럭은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많은 관람객들은 B-Boy들과 장비의 댄스 배틀이 가능할까 생각했지만 부드럽게 움직이는 캐터필라의 장비에 그저 탄성을 터트릴 뿐이었다.

**고객을 위한 SOLUTION FAIR 2007**

행사장 곳곳에는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다.



17 (주)헤인에서 준비한 버스를 타고 현장을 떠나는 참관객들. 그 뒤로 헤인인의 박수와 인사가 멈추지 않았다

레이싱결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과 캐터필라의 다양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념품존, 긴 참관시간을 위해 준비한 뷔페, 전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경품 추첨 시간, 헤인 CEO를 비롯한 임원들과 고객과의 대화 시간 등 행사에 재미와 휴식을 곁들였다.

(주)헤인이 오랜 시간을 준비해온 행사이니만큼 참관객마다 "만족스럽다"를 연발하는가 하면 제품 구입을 확정 짓고 돌아가는 고객 등 행사에 대한 칭찬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서울 굴삭기 연합회 관계자와 경남 경영인 연합회 관계자는 "조용하게 캐터필라 장비만을 집중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기회였다"면서 "2007 한국국제건설기계전과 비교해볼 때 헤인 자체 전시회가 회사 입장에서는 홍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 방문 고객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마음

투어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고객들의 차량이 정문을 빠져나갈 때마다 일렬로 줄지어 두손을 높이 들고 배웅하는 헤인 직원들의 표정에서는 먼 거리에 불구하고 행사장을 찾아준 고객들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마음과 오랜 기간 고생하며 준비한 행사의 끝이 못내 시원섭섭한 감정들이 엇갈림을 엿볼 수 있었다.

(주)헤인은 이번 SOLUTION FAIR 2007에서 얻은 고무적인 반응을 통해 다시 한번 고객에서 시작된 헤인의 입지와 지지 기반을 확보했으며 '고객의 성공이 헤인의 성공'이라는 주제 아래 고객의 신뢰와 믿음을 주기 위해 더욱 발 빠른 행보를 지속해 나갈 전망이다.

글 | 목지영 ● 사진 | 정준택



**최광호 본부장**  
마케팅사업본부(행사 주관)  
행사를 성황리에 잘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 회사가 고객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 보다 깊은 신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행사를 준비하며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헤인 가족의 숨은 노력을 수도 없이 보았으며, 전시회를 지원해 주신 회장님, 사장님 이하 전 임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고객의 가치 창조를 위해 새로 구축한 CRM 시스템을 통한 전시회 마무리에 만전을 다하길 바랍니다.



**류광속 과장**  
영남지사(고객 인솔)  
지난 해 HEX-Day (굴삭기 고객 초청 행사)를 담당했던 실무자로서, 당시 고객의 기대에 충분히 보답하지 못한 아쉬움을 금번 행사를 통해 말끔히 해소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당시에 참석했던 고객들로부터 기존 행사보다

한층 더 준비 되고, 내용면에서도 알차 (주)헤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동시에 사업 파트너로서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의견에 본인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고객들과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드리고, 향후 질/양적으로 업그레이드된 행사를 통해 우리의 비전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공유할 수 있는 훌륭한 장으로 성장하기를 고대합니다.



**328D 너무 욕심이 납니다**  
병덕 고객(경상남도 진주시)  
오래간만에 이런 행사에 오니 기분이 좋네요. 행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이 보입니다. 준비한 직원들 혹시 몸살난 것 아니죠? 개인적으로 328D에 많은 관심이 갑니다. 정말 당장 구입하고 싶은 정도로요. 기존의 장비들은 한번 움직이라면 많은 공간이 필요했는데 협소한 곳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보니 탐이 납니다. 이미 캐터필라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명성과 (주)헤인의 노력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명품 아닙니까. SOLUTION FAIR가 앞으로도 이대로만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 (주)헤인과 캐터필라의 명성도 지금만큼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헤인 파이팅!



**더 새로운 것을 많이 보여주는데 전시회가 되길**  
이세봉 고객 (서울시 구로구)  
많은 것을 보여주는 행사여서 아주 즐겁게 구경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도 많지만 새로운 것이 몇 개 보여서 더 좋네요. 소선회 장비와 매연질감장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몇 번을 만

져봤거든요. 그런데 만질수록 탐이 내네요. 예전보다 커진 전시규모와 다양하게 많은 것을 보여줘서 참관 내내 흥미로웠습니다. SOLUTION FAIR 2007에서 참 많은 것을 얻어갑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기존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던 제품들 외에 새로운 것이 좀 적은 기분이 듭니다. 과거와 현재를 보기보다는 미래를 보고 싶습니다. 다음 SOLUTION FAIR에서는 더 새로운 장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한 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SOLUTION FAIR를 부탁드립니다.



**큰 기대감 충분히 만족**  
오연식, 김상기, 송하성 고객(충청북도 청주시)  
캐터필라의 장비가 좋은 것은 건설기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다 알걸요? 캐터필라 장비를 단독 수입하는 (주)헤인에서 큰 행사를 연다고 하기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 이상입

니다. 생각보다 규모도 크고 너무 좋군요. 작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처음 올 때는 '그저 구경이나 하자'라고 왔는데 텐급과 360급 굴삭기를 보니 구입하고 싶은 욕구가 드네요. 신장비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소선회 굴삭기는 탐이 날 정도입니다. 또 고객을 위해 배려한 곳곳이 눈에 들어옵니다. 음식도 맛있었고 관람도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일찍 서둘러 단체버스에 탄 보람이 있네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받은 설명서와 리플렛을 펴놓고 읽는 중 해뵈아겠습니다.



## 2007 한국 국제건설기계전, 헤인의 미래를 엿보다 (주)헤인 'CONEX KOREA 2007' 참가기

친환경·에너지절약형 첨단 건설기계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07 한국 국제건설기계전'이 9월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됐다. 우리나라 건설기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기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CONEX KOREA 2007'. (주)헤인의 체계적인 홍보와 새롭게 출시된 장비 전시로 인해 고객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주)헤인의 미래를 엿볼 수 있던 'CONEX KOREA 2007' 을 따라가보자.



2007 한국국제건설기계전 (www.conexkorea.org) 이 9월 6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국국제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건설기계 최근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17개국 183개사가 참여해 굴삭기, 로우더, 도저, 지게차 등 건설기계 600여 종을 선보였다.

1996년 이후 6회째 전시회에 참여한 (주)헤인은 지금까지 국내에 선보이지 않은 새로운 제품을 중심으로 캐터필라 M313D 06급 휠굴삭기, 303C 소선회형 미니 굴삭기, D3G LGP 습지형 불도우저, AP-755 아스팔트퍼니셔, CB14 소형단템플러, 아트라스콕코 XRVS606CD 중고압 콤프레샤등을 고객들에게 선보였다.

(주)헤인의 부스를 찾은 고객들은 전시된 장비에 올라 승차감 등을 확인하는 한편 새로운 장비의 카달로그를 찾고 상담을 하는 등 캐터필라의 장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톡톡 튀는 노랑색의 부스에 경쾌한 모자를 쓴 (주)헤인의 직원들은 신나는 음악과 함께 부스를 찾은 고객들에게 환한 미소와 전문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장비에 대한 정보를 전하고 상담에 임하는 등 '2007 한국국제건설기계전'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피력

했다. 기존에 소개되지 않았던 선진장비를 대거 전시했기 때문에 고객의 반응과 의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또한,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전시 중 고객들이 즐거움을 가지고 (주)헤인의 부스를 찾을 수 있도록 중간 중간 짝짝 이벤트를 열어 캐터필라의 로고가 새겨진 모자와 시계 등 다양한 기념품을 증정하기도 했다.

(주)헤인은 이번 한국건설기계전에서 새로운 장비들을 소개해 고객들의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피드백을 통해 건설기계 중 '명품'으로 인정받는 캐터필라와 (주)헤인의 입지를 재확인 할 수 있었다. 앞으로 (주)헤인은 한국 건설기계전에서 확인된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의 문을 열고 시장을 점령하기 위해 더욱 발 빠른 행보를 계속할 전망이다. 글 | 목지영 ● 사진 | 이윤희



고객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은 캐터필라 M313D 휠굴삭기 국내에 최초로 소개되는 휠굴삭기로 뛰어난 연비와 주행 성능을 무기로, 최첨단 ACERT 기술이 적용된 128마력의 C4.4엔진을 장착하여 국내 동급장비 대비 최대 20%의 연비 향상과, 도로 주행시 붐의 속업소바 역할을 하는 '라이드 컨트롤' 이 기본 사양으로 장착되어 도로주행 안정성이 향상되었으며 동급 장비 국내 최초로 붐 드리프트 현상을 예방해주는 Anti-drift 밸브가 장착되어 운전자의 작업안전성도 세심히 고려되었다.

### MINI \*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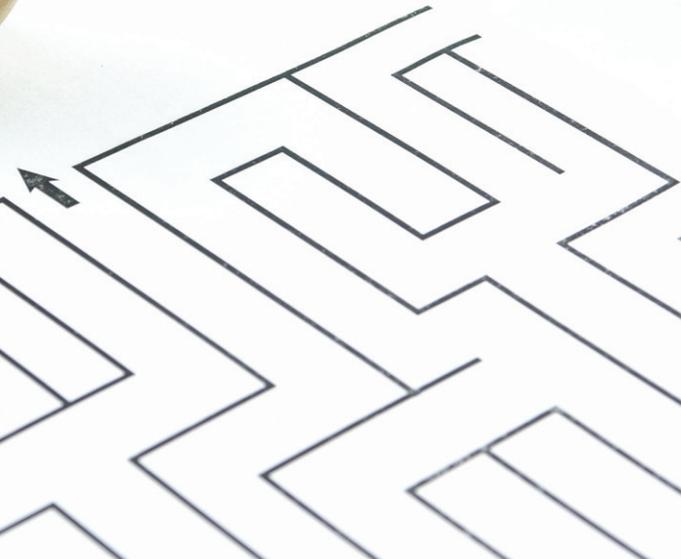
전상경 님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한국건설기계전이 열릴 때마다 전시장을 찾곤 합니다. '성도중기' 라는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이죠. (주)헤인의 캐터필라는 기사들 사이에서 '건설기계의 명품' 이라 통합니다. 그리고 (주)헤인의 꼼꼼한 서비스는 이미 정평이 나 있죠. 캐터필라의

328D 10급 소선회형 중대형 굴삭기에 관심이 있어 자세히 살펴보는 중입니다. 직접 운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캐터필라 장비에 욕심을 내던 중인데 와서 직접 만져보니 더 관심이 갑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장비와 최선을 다하는 A/S를 기대합니다.

# 펀드 갈아타기 이것만을 알아두자

**펀드 가입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가입한 펀드를 언제 환매할 것인지, 그리고 수익 실현을 한다면 그 자금으로 어디에 다시 투자해야 하는가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펀드 가입자들은 추가상승 여력이 높다고 환매를 만류하는 상품 운용사의 자료와 시장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펀드분석가의 의견을 비교하며 망설임이 수익실현 시기를 놓치기 십상이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펀드, 일정기간 내 한계수익

지난해 초 중국·인도 펀드에 1억 원을 가입한 김 모씨는 나름대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급격히 하락했던 중국·인도의 주가도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이쯤에서 해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전문가들에게 의사를 물어보지만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의견과 해지한 뒤 국내 펀드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을 접하고 있다.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는 일정기간 내에서 대부분 한계수익을 가진다. 따라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 환매를 통해 수익 실현을 도모하고 투자대상을 전환하는 테크닉이 필요하다.

최근 많은 투자자들은 지난해 한국과 일본, 중동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증시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되던 한국과 일본이 올해 높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 증시는 증시 평가의 잣대 중 하나인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을 기준으로 할 때 세계 주요증시에 비해 저평가돼 있는 것은 분명하다.

## 국내 증시, 상승폭 강해

국내 증시는 미국의 모기지회사 부실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 중국의 추가 긴축정책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 등 대외적 요인으로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며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올해의 국내 증시는 글로벌 시장보다 상승폭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1년 동안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매각을 통해 확보한 15조원 정도의 자금이 중국 등 다른 이머징 마켓으로 이동했으나 중국시장 등의 침체 예

상으로 다시 국내로 일부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또한 넘치는 달러의 해소방안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보는 한국과 일본 시장에 투자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국내의 수급구조 또한 수요우위를 예측하고 있어 수급구조 면에서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은 높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이었던 북핵 문제가 최근 해소되면서 국가신용등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가격 상승폭이 컸던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더욱이 2·4분기 이후 반도체가격 회복이 예상되고 있어 하반기에는 국내 증시의 본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 분산투자전략 절실

수익실현을 통해 확보한 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산투자 전략이 절실하다. 투자가능 자금의 40% 정도는 주식시장 조정장에서도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ELS 등 원금보전추구형 상품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60%는 미국 모기지 부실화 등 대형 글로벌 리스크가 국내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시점을 분산해 나가는 게 좋다. 우선 단기 고수익상품인 단기특정신탁(MMT)이나 CMA 등에 예치해 둔 뒤, 불확실 요소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본격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유망 펀드는 인덱스 펀드와 IT 관련 기업, 조선, 금융업종의 투자비중이 높은 펀드다.

## 01\_ TEREX 딜러십 계약



(주)헤인은 2007년 10월 29일, 76억 달러 매출 규모의 세계 3위 건설 중장비 메이커인 'TEREX'사와 딜러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계약으로 (주)헤인은 TEREX사의 American Crane(All Crane Lines), Bendini Crane(All Crane Lines), Changjiang Crane(All Crane Lines), Terex Powerscreen(All Crushing & Screening), Terex Reedrill(All Materials Processing), Terex Pegson(All Crushing & Screening), Genie(All Aerial Work Platforms) 부문 국내 독점 판매 및 서비스를 수행하게 되었다.

## 02\_ 창립 47주년 기념식 실시



(주)헤인은 창립 47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월 17일 본사 시그마홀에서 창립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장기 근속자 및 우수 사원에 대한 시상 후, 손규식 회장의 창립 기념 축사 순으로 이루어졌다. 손규식 회장은 헤인 창립 47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내 최고의 건설 장비 종합 서비스 회사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인재 개발 및 육성, CRM 등 핵심 성공 요소를 강조하였다.

## 03\_ (주)헤인에너지, 해남 태양광 발전소 현판식 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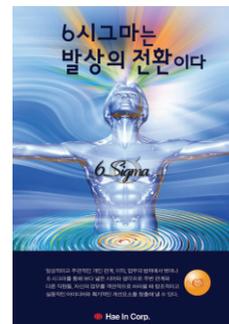


지난 2007년 10월 31일, 헤인 회장과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식회사 헤인에너지 해남 태양광 발전소의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지난 9월 20일 준공 후, 상업 운영을 시작한 이래 50 여일간의 성공적인 시험 가동을 마치고 공식 운전에 들어갔다. 지난 10월 한달 간 굵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보다 훨씬 웃도는 발전 가동률을 보임으로서 향후 발전소 운영 전망에 좋은 소식을 예고하고 있다. (주)헤인 파워 시스템사업본부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기획부터 건설, 시운전, 준공에 이르기 까지 애쓴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 04\_ CRM 시스템 구축 완료 및 운영시작

(주)헤인은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CRM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9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주)헤인은 본 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의 거래 정보를 포함한 모든 고객 접점에서 얻어지는 접촉 정보를 관리 할 수 있으며, 고객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한 초석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CRM팀에서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보다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고객 관리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CRM담당 이찬재 대리  
Tel: 02)3498-4668 / H.P : 016-266-2180

## 05\_ 새 옷으로 갈아 입은 헤인의 6 시그마



(주)헤인과 6 시그마팀에서는 6 시그마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새로운 각오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헤인의 색깔을 입힌 새로운 6 시그마 포스터 및 로고를 제작하였다. 아직까지 6 시그마를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6 시그마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호응과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6 시그마는 발상의 전환이다.' 라는 주제의 포스터다. 이 포스터에는 일상적이고

주관적인 개인관계, 이익, 업무의 범위에서 벗어나 6 시그마를 통해 보다 넓은 시야와 생각으로 주변 관계와 다른 직원들, 자신의 업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와 획기적인 개선 요소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앞으로 헤인의 6시그마는 한층 더 성숙된 모습으로 전개 될 것이다.

## 06\_ (주)동협에 345CL MH 장비 계약



(주)헤인은 지난 6월, 동국제강 협력업체인 (주)동협과 캐터필라 345CL MH 장비를 계약하였다. 이 장비는 동국제강 포함 공장 내 제강용 아크로에 철스크랩을 장입하는 작업 공정에 사용하는 Scrap Handling 전용 장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345CL Material Handler (머티리얼 핸들러) 장비는 운전 중량 57,431 kg, 3 Piece Fronts (1 볼 & 2 스틱), Max. Pin Reach 17.9m, Max. Pin Height 16.4m 작업범위 사양의 장비이다. 현재 캐터필라 345BH MH, 345CL, 235C MH 등을 운영하고 있는 헤인의 우량 고객인 (주)동협과의 계약으로서 그 의미가 더 뜻 깊다.

# 직장인의 병을 부르는 잘못된 자세 4가지



자세 불량한 직장인은 병에도 잘 걸린다? 하루 8~10시간 이상 책상 앞에 앉아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자세를 취하게 되고 척추와 관절질환 발생률도 높아진다. 직장인들의 일반적인 잘못된 자세 4가지와 그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질환을 알아본다.

**● 구부정한 자세로 모니터 보는 거북이파**  
 구부정하게 허리를 굽히고 목을 앞으로 쭉 뻗 상태로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는 직장인들. 시간이 갈수록 허리가 아프고 목도 빠근해진다. 눈이 충혈 되고 양 어깨가 빠근한 듯한 통증도 수반된다. 어깨를 두드려도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  
 눈높이에 비해 낮은 모니터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거북목 증후군도 생기기 쉽다. 목이 아래로 꺾이면서 뒷목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며 통증도 발생하게 된다. 직장인들은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붙이고 되도록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업무 도중 30~40분의 시간차를 두고 선프마사지나 스트레칭을 해주면 목, 허리, 어깨 근육 긴장 완화에 한결 도움이 된다.

**턱 괴고, 다리 꼬고 앉은 날라리파**  
 습관적으로 턱을 괴거나 다리를 꼬는 직장인들. 일시적으로는 편할지 몰라도 척추와 관절에는 치명적이다. 턱을 괴면 한쪽 어깨에 무리가 가고 기울어져서 '짜짜' 어깨가 유발된다. 자주 괴면 턱이 어긋나면서 잘 안 벌어지는 턱 관절 질환이 생길 수 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얼굴이 쉽게 부어 '얼큰이' 얼굴을 만들기도 한다.  
 오랜 기간 동안 다리를 한쪽으로만 꼬면 골반과 척추가 뒤틀어지고 심할 경우 요통과 디스크로까지 발전한다. 서서히 혈관이 팽창되어 실핏줄이 피부 위로 드러나는 하지정맥류 발생률도 높아진다. 때문에 습관적으로 턱을 괴거나 다리를 꼬는 행동은 되도록 자제하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양 발은 땅에 붙이는 것이 좋다.

**꾸벅꾸벅 조는 안습파**  
 졸음이 몰려오는 오후 2시. 아예 책상에 엎드려서 자지는 못하겠고 상사의 눈을 피해서 꾸벅꾸벅 조는 직장인들. 앉은 자세에서 잠들면 고개가 좌우 앞뒤로 반복적으로 꺾이게 되어서 목 디스크, 목 근육통이 유발될 수 있다. 또한 잘못된 자세로 잠들면 허리근육이 계속 긴장 받게 되어서 척추질환이 야기되기도 한다. 졸음과 피곤함은 다소 풀릴지 몰라도 깨고 나면 목과 어깨가 빠근함이 느껴진다. 졸릴 때는 등받이에 살짝 머리를 기댄 채 자거나, 여건이 안 된다면 맨손체조로 졸음을 달아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최근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페퍼민트 향이 나는 캔디, 껌 등을 먹으면 졸음을 쫓는데 효험이 있다고 한다.

**빠들게 앉아서 일하는 막가파**  
 가끔 사무실에서는 의자에서 엉덩이를 쭉 빼거나 몸을 앞으로 곧 자세로 앉아 있는 불량한 자세의 직장인들도 목격할 수 있다. 이렇듯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자세가 장시간 지속되면 몸 상태도 '불량'이 된다. 허리, 어깨, 엉덩이 등 특정 부위에 무리가 따르고 요통이나 디스크로 연결되는 것이다.  
 심하면 목, 어깨, 팔이 아프고 붓는 VDT증후군의 일종인 경관완 장애가 수반되기도 한다. 경관완 장애는 컴퓨터 앞에서 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해야 하는 프로그래머, 웹 디자이너 등이 잘 걸리는 질환이다. 때문에 내근직 직장인들은 틈틈이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양손을 허리 아래에 받친 뒤 상체를 뒤로 젖혀주는 운동을 하면 어깨, 허리 통증완화에 효과적이다.

# 독자 나눔터

●● 처음엔 그냥 오는가보다 했는데 올 때가 됐는데 하며 자꾸 불편함만 바라봅니다. 6월 초부터 빈 불편함만 쳐다보다 지칠 때쯤 되니 이제서야 왔습니다. 반가움에 사보를 들고 집에 들어서니 아들이 포크레인 책이다 하며 더 좋아합니다.

충남 당진군,읍 원당리 1226 부경아파트 102동 1207호 **남제일** 님

●● 중장비를 다루는 회사 이름 같지 않은 '헤인' 사명이 중장비의 터프함을 중화시키는 묘한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꿈보다 해몽일런지요. ^^; 주부로서 관심 가는 기사마다 도전해 보는데 이번엔 행한 베란다에 내가 좋아하는 소곡이 실려진 화분을 두어개 사다 뵈어요. 가을을 기다리는 느긋함으로 더위를 맞이합니다.

대전시 중구 문화동 상아A 5-105 **김숙자** 님

●● 한정된 지면에 독자들을 위해서 늘 유익한 생활정보, 새로운 제품의 구매자료, 관련업계 동향, 그리고 항상 고객 감동을 추구하는 직원들의 노고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계간지 애독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첫째인 헤인이 항상 최고이길 기원합니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1동 독산한신A 8-1005호 **박은숙** 님

●● 남편이 중장비업을 합니다. 매번 사보가 배달되어오지만 저는 읽어보지도 않았었는데 우연히 넘겨보니 내용이 참 신선하고 좋아 다 읽어보았습니다. 남편에게도 헤인 중장비를 사용하게 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5리 가창중석타운 103/103 **손동진** 님



사보에 대한 소감을 옆서에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사보 <헤인> 다음 호 독자 나눔터에 사연을 게재해드리고,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CAT시계 · 만보기/벨트세트

문의 | **윤지연**(jyyoon@haein.com) 02-3498-4634

# 축하합니다

## ●●● 결혼을 축하합니다

영남지사 사원 **안성환**  
영남지사 사원 **박지수**  
서울경기지사/인천사무소 대리 **최준호**

## ●●● 입사를 축하합니다

고객지원본부/기술서비스팀 사원 **구경옥**  
고객지원본부/엔지니어서비스팀 주임 **송재신**  
고객지원본부/엔지니어서비스팀 사원 **최원상**  
고객지원본부/CSA팀 사원 **김종태**  
장비사업본부/Allied장비팀 과장 **최용진**

## ●●● 자녀출생을 축하합니다

중부호남지사 대리 **김태형**  
중부호남지사 사원 **홍성구**  
마케팅사업본부/장비마케팅팀 대리 **방석원**  
고객지원본부/CSA팀 사원 **박희숙**

## ●●● 승격을 축하합니다

경영기획본부/경영기획팀 대리 **황인성**

## 지난호 퀴즈 정답

5	2	4
8	7	9
1	3	6

## 우 편 업 서

### 보내는 사람

\_\_\_\_\_

\_\_\_\_\_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유효기간  
2007.7.15~2009.7.14  
서울시서초우체국  
승인 제1823호

## 애독자카드

● 위의 그림을 아래 그림에 맞게 재배열해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빈 칸에 순서를 올바르게 배열하여 적어 주세요.

1		

● 독자 나눔터에 신고 싶은 사연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정성스러운 사연을 적어주시는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주)헤인 사보편집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92-6 헤인빌딩

1 3 7 - 1 3 0

